

예하성, 제74차 총회 제3회 실행위원회

오직 말씀, 한국교회 세속화 단호히 배격

하나님께 시선고정, 성령충만으로 복음전파 사명 감당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총회장 엄하석 목사)는 11월 20일(목) 오후 1시,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에서 제74차 총회 제3회 실행위원회를 열고 교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한국교회 안팎에서 확산되는 비성경적 교리, 종교다원주의와 신사도운동의 WEA를 합리화 하려는 행위 등 세속화의 영향에 대해 다시 한 번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1부 예배는 총무 오세준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서울강남지방회장 김사무엘 목사의기도 후 총회장 엄하석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엄 목사는 행 1:4-9 말씀을 본문으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성령충만할 때 나타나는 증거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된다. 권능을 받고 나서 전하는 자가 된다. 예수님을 목숨 걸고 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은 성령충만의 척도인 것이다. 내안에 성령의 불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하고 "한국교회 앞에 놓인 여러 도전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함"과 강조했다. 이어 전임총



회장 김인찬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회의는 회원점명과 개회선언 후 전 회의록 확인, 총무 및 재무 보고 등 정기 보고가 이어졌다. 총무 오세준 목사는 -부흥사회 영적 재무장 성회(9월 22~24일, 춘천오순절기도원) - 2026년도 목사고시 대상자 오리엔테이션(9월 29일) - 여교역자국 추계 세미나(10월 13~15일) - 제13차 전국사모연합회 단합대회(10월 20~22일) 등 교단주요 행사진행 상황을 상세 보고했다.

또한 충북지방회 기쁨충만교회 담임 변경(유덕현 목사)과 더불어 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등 교단 행정 전반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번 실행위원회에서는 교회가입 청원 3건,

교역자가입 청원 3건, 교회주소·교회명칭변경 보고, 교회전출입 청원, 교역자 원로奏准 보고 등이 질서에 따라 처리됐다. 특히 호남지방회 은성 교회의 윤향숙 목사를 비롯한 신규 교회·교역자가입이 승인되며 교단의 사역 지평이 더욱 확장되는 계기가 됐다.

교단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WEA 서울총회 반대, 종교다원주의·세속화의 교회 침투 경계,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 감염병 예방, 자유민주주의 수호, 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 등 한국교회가 직면한 국가적·사회적 이슈에 대해 협력과 기도를 다짐했다. 더불어 북한의 도발 중단과 한·미 동맹 강화 등 한반도 안보를 위한 기도도 함께 이어졌다.

'사이버신학원 졸업예배'(12월 18일 오전 11시)와 '2025년 한국교회의 밤'(12월 16일 오후 5시) 등 연말 주요 행사도 공유되었다.

이번 실행위원회는 교단의 행정과 사역을 점검하는 자리이자, 비성경적 사조를 배격하고 오직 바른 말씀을 전하고 지키는 교단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각지방회 실행 위원들에게 본회의 결의와 사역 방향을 지방회와 교회에 정확히 전달하도록 당부했다.



2025년도 11월 교단 정책위원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이를 가장 경계해야

"예하성 교단이 성경대로 믿고 가르치고 행하도록 하심을 감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74차 총회 제6회 임원회 열려

"오직 말씀과 사명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총회장 엄하석 목사)는 11월 18일(화) 오전 11시, 의정부 순복음주성교회 회의실에서 제74차 총회 제6회 임원회를 개최하고 교단 현안보고와 청원 심의,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1부 예배는 총무 오세준 목사의 사회로 시작

되었으며, 회계 백영자 목사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부총회장 이인호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 목사는 삼상 1:1~8 말씀을 본문으로 '수명으로 살지 말고 사명으로 살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의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명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배는 사무국장 윤기석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2부 회의는 총회장 엄하석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다. 서기 문찬우 목사의 회원점명과 개회선언 후 총무·재무·회계 보고가 이어졌으며, 이어 각종 청원과 보고가 이어졌다.

이번 임원회에서는 교회 및 교역자가입 청원,

은퇴·원로 보고 등이 상정되었다. 교단 내 신규 교회 및 교역자가입 건을 비롯해 연말 주요 행사 및 사회선교 사역 등을 논의·의결했다.

이번 임원회는 교단의 행정 체계를 정비하고, 현장 중심의 사역 지원을 확대하는 데 의미를 두었다. 임원회는 광주 북구 은성교회(창립 2025년 10월 3일)의 교단 가입 청원을 가결했다. 함께 제출된 윤향숙 목사의 교역자 가입 청원도 승인됨에 따라, 은성교회는 호남지방회 소속으로 정식 등록됐다. 교단은 "새로운 교회와 사역자의 참여가 교단의 사역 저변을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충북지방회 기쁨충만교회 신현찬 목사가 2025년 9월 18일부터 원로목사로 추대되었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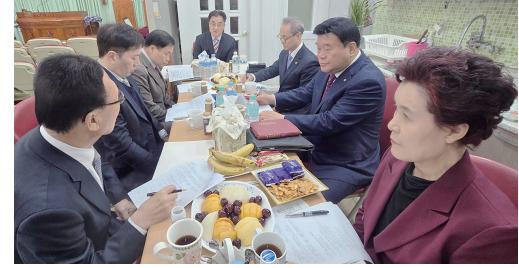
보고가 이루어졌다.

임원회에서는 사이버신학원 졸업예배가 12월 18일(목) 오전 11시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에서 정례위원회를 개최했다. 모임에 앞서 드린 예배는 정례위원장 조용목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어 정례위원장 김상용 목사의 대표기도, 조용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마 13:30-33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남지 않은 이 때에 깨어 있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이를 가장 경계하고 하셨는데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즐거움으로 알고, 바른 믿음 가지고 사명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교단이 성경대로 믿고 가르치고 행하도록 하게 하심을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예배 후 곧바로 이어진 정례위원회에서 정례위원장 조용목 목사는 임원회에서 상정한 결의안을 처리했다.



“마약 없는 청정 대한민국 만든다”

국제마약풀리스유니버스티 총장 취임예배

국제마약풀리스유니버스티 제2대 이사장 양창부 박사, 제2대 김태연 박사 취임 감사예배가 지난 11월 15일(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학교로 소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드려져 마약 없는 청정 대한민국을 위해 모두가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취임예배는 학장 박상구 목사 사회로 부총장 권경환 목사의 대표기도, 임정화 백석대 교수의 특송, 명예총장 신동진 박사의 창 6:13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섬광의 시대에 노아가 되자’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신 박사는 “이 지구촌에 구원의 방주를 건설하고 만드는 일에 나도 동참하고 함께 이룬 것을 마음 속으로 감사하기 바란다. 불확실성과 혼돈의 이 시대에 국제 마약대학교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이 사명을 빛의 사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예배는 계속해 제주캠퍼스 학장 박에 수 박사의 한글기도, 김철영 목사(우석교회 원로)의 축사, 이한열 장로(한림그룹 회장)의 격려사 순으로 이어졌다.

총장 김태연 박사는 취임사를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 아닌 청소년까지도 마약에 물들 정도로 심각한 환경에 놓여있다. 이러한 시기에 총장직을 맡게 되어 부담감도 있지만 새로운 사명감도 생겼다. 마약 없는 세상을 위해 혁신적으로 일하겠다. 기도와 성원을 바

란다.”라고 말했다.

이사장 양창부 박사도 취임사를 통해 “마약학교로서는 최초로 경찰청에 신고하고 유니버스티로 등록했다.”라며 반가운 소식을 알렸다.

양 목사는 “이스라엘과 암살론의 전쟁 시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 이긴 것처럼 우리 모두 오늘 취임하는 총장님을 받들고 섬기며 하나님 밖에 없는 대학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군선교 복음화 위한 제11회 MMB캠프

현역장병 13명 M선교사 임명



다세움비전선교회(대표 한아람 목사)는 최근 수도기계화 사단 맹호교회에서 제11회 다세움 MMB캠프(수기사 기독장 병 영성수련회)를 ‘그리스도의 군사, 복음의 최전선!’이라는 주제 아래 지난 11월 4일부터 6일까지 가평 맹호교회에서 갖고 현역장병 13명을 M비전선교사(Military Vision Missionary)로 임명했다.

이날 임명된 M비전선교사들은 앞으

로 자신이 속한 부대 안에서 복음의 통로로, 예배 공동체의 리더로, 동료장병들을 위한 영적 멘토로 섬길 예정이다.

이번 임명은 군선교 현장을 새롭게 세워가는 현장 중심형 선교플랫폼으로 다세움비전선교회는 이를 단순한 일회성 훈련이 아닌, 지속적인 후속 멘토링과 영성훈련을 통해 M비전선교사들이 군대

안의 복음적 리더십 네트워크로 성장해 가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다세움비전선교회는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한다. 전 세대가 산다’는 모토를 가지고 특별히 다음 세대 군장병 청년들을 대상으로 군대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종교활동을 시작한 귀한 영혼들을 전역 이후에도 개인의 삶을 기독교신앙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아람 목사는 “군선교는 우리 모두의 사역이다. 군선교의 열매를 맺기 위한 우리 모두의 동참이 필요하다.

군선교 사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교회와 많은 단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군선교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세움비전선교회(0507-1454-6765)로 연락하면 된다.

한성연, 사회복지정책포럼 개최

‘교회, 지역의 배움터가 되다’ 주제로



이날 포럼은 조준범 성결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조 교수는 “교회 사회복지와 교회사회사업의 정의”를 시작으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회복지적 역할과 신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 교회사회사업의 이론적 접근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교회사회복지활동의 실천 모형과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소개했다. 조 교수는 “교회가 복음의 실천 공간으로 지역과 함께 호흡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확장”이라고 강조했다.

GVCS, 분당캠퍼스 개교 재검토

갈보리교회 내부사정으로 대안 물색

(사)글로벌선진교육은 음성, 문경, 미국, 세종에 이어 수도권 캠퍼스 설립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 분당에 위치한 갈보리교회와 협약 관계를 통하여 통학형 종교 등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6년 3월 1일부로 개교하

기로 하고 지난 10월 29일 갈보리교회에서 내부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어 외부 설명회를 12월 6일 분당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알려진 바대로 교회 내 간 등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학교 설립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하고 개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글로벌선진학교는 정체성이 확실한 한국형 글로벌 교육과정으로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 교육으로 교계에 널리 알려져 있기에 기숙학교에 자녀를 보내기 어려운 학부모들은 수도권 설립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기다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6학년도 3월에 개교를 목표로 준비하여 왔기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갈보리교회가 학교 개교 장소로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제3의 장소를 적극 검토하여 더 이상 개교가 미루어지지 않도록 가능성도 커졌다.



한장총, 제43회 정기총회 개최

대표회장 이선 목사, 상임회장 강대석 목사 추대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는 지난 11월 18일(화)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제4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대표회장에 이선 목사(봉담중앙교회)를 선임했다. 또한 한장총은 상임회장에 강대석 목사(경운교회)를 추대했다.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이선 목사는 “한국 장로교회의 거룩한 구심점으로 다시 서겠다”고 선언하며, 7대 핵심 비전을 제시하고 한국교회의 연합성과 공공성, 그리고 영적 회복을 위한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먼저, 원로 및 은퇴 목회자 약 3만 여 명을 정성껏 섬기는 것을 약속했으며, 증경대표회장과 각 총회 총회장과의 소통을 정례화해 연합기관으로서의 무게감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말씀·기도·성례로 상징되는 장로교 영성 회복을 중심으로 ‘연합 기도운동’을 추진해

세계 장로교회와의 교류 확대 및 사회적 약자 돌봄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놓았다.

신임 상임회장에 오른 강대석 목사는 “영혼구원 본질 회복이 한국교회 부흥의 길”이라며 영혼구원의 본질 회복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그는 “영혼 구원에 대한 무관심이 신앙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기총, 한인 선교사 의료지원 가동

소울러브피플 2,400만원 상당 의약품 기증

(사)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 회장 전기현 장로,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 /이하 세기총)는 지난 11월 10일(월)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세기총 본부에서 사단법인 소울러브피플(이사장 이분화 목사, 이하 SLP)이 기증한 의약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전달된 의약품은 총 약 2,400만 원 상당이며, 세기총을 통해 해외에서 사역 중인 한인 선교사들에게 우선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은 세기총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와 SLP 이분화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인사 및 향후 협력 방향을 공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가능한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세기총은 국내 본부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걸쳐 광범위한 한인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긴급구호

와 선교 지원, 지역사회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기총 관계자는 “현장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SLP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선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이날 전달식을 계기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으며, 향후 정기적 의료 지원 및 현지 연계 사업, 선교사 건강 관리 프로그램 등 구체적 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세기총은 “이번 협력이 전 세계 한인 선교사와 지역사회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모범적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제장애인협, 전국 장애인합창대회 마쳐

서울 코웨이 물빛소리합창단 대상 수상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대표 회장 윤의중 상임지휘자, 백제예술대학 학교 송혁규 교수, 드림 코리스 강신원 지휘자, 문화기획자 박선기 대표가 함께 참석했다.

심사 기준은 표현력, 협동성, 무대매너 항목 및 참여도의 평가를 종합하여 공정하게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는 인천 송도 소재 아트센터 인천에서 개최되었으며, 전국 각 지역의 예선을 통과한 16개 장애인합창단이 참가해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대통령상이 수여되는 영예의 대상은 서울 코웨이 물빛소리합창단이 차지했으며, 금상(국무총리상)은 울산 소나무합창단, 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은 경기 칸토합창단, 동상(인천광역시장상)은 충북 현대엘리베이터오르락(樂)합창단이 각각 수상했다.

심사는 대한민국휠체어합창단 정상 일 대표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인천시립

장애인으로 구성된 전문예술단인 ‘펠리체오케스트라’와 2024 전국장애인합창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서울 골프존파스텔 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대회의 의미를 더하기 위한 축하공연을 했다.

전국장애인합창대회 집행위원장이자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상임이사 고재오는 “이번 대회를 통해 장애인합창단의 사회적 친화력과 예술적 역량이 한 층 성장했다”며 “참가자들의 열정과 노력이 장애인합창단의 열정을 응원했다. 축하공연으로는 예술적 재능이 있는



‘2025 글로벌 6K 마라톤 캠페인’ 열려

모여진 후원금은 케냐·잠비아 주민 식수위해 사용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이 지난 9월 20일부터 11월 15일까지 5회에 걸쳐 개최한 ‘2025 글로벌 6K 마라톤 캠페인’ 전국대회가 1만 1700명의 참가자들이 참여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올해로 처음 개최된 이번 대회는 9월

20일 창원 ‘315 해양누리공원’에서 첫 포문을 열었으며, 10월 18일 전주 ‘전북특별자치도청’, 10월 25일 대구 ‘울하체육공원’, 11월 8일 대전 ‘대전엑스포시민광장’, 11월 15일 고양 ‘일산호수공원’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됐다.



총 1만 1700명의 참가자들은 아프리카 이동들이 물을 얻기 위해 걷는 평균 거리인 6km를 함께 걸으며, 아동들이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고 식수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연대의 시간을 가졌다. 대회 현장에는 개그맨 김기리와 러닝코치 이연진, 뇌과학자 장동선이 동참하며 대회 취지를 알렸다.

이번 글로벌 6K 마라톤은 한국을 넘어 말레이시아,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각지에서도 개최되며 선한 영향력을 넓혔으며, 대회를 통해 모인 참가비와 후원금은 케냐, 잠비아의 약 13,000명 아동과 지역주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 생명의 말씀 |



김상웅 목사
• 청주중앙순복음교회 당회장
• 교단 전임 총회장
• 청주지역 기독교연합회장 역임
•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전임 대표회장

신앙생활에서 믿음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믿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믿음의 시작)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믿음의 행위)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믿음의 결과)” 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잠재 능력을 개발하여 원하는 바를 성취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개발을 하자’라든지 ‘꿈을 가지고 노력하면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념이며 의지이지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

분은 믿음과 신념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개발이나 신념은 윤신적이며 자신의 것이지만 믿음은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사 기드온은 하나님과의 부름을 받을 당시 겁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삿 6:12)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큰 용사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그런 꿈도 꾸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큰 용사여!’라는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 실제로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될 줄 믿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로 보아 믿음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합리적이고 타당하여 융납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관습이나 전통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의지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2.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은 바로 앞부분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바라는 것들이 실제 모습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실상(실상)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상이 없기에 바라보았을 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계속 바라보고 인내하며 나아갔더니 그 모습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도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롬 8:24)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과 부활하여 승천하신 것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 하였기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가 나타난 것처럼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믿음은 미래를 당겨서 현실로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2절)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진들이란 누구를 말할까요?’ 이는 믿음의 영웅들, 이제까지 믿음으로 살아간 열조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대로 믿고 나갔을 때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사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써 보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열조에 대한 증거들로 가득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에녹은 믿음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였으며,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모세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으며, 다윗은 믿음으로 나아가 물맷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열조들의 믿음의 결과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잡고 나아갈 때 우리도 믿음의 열조들처럼 믿음의 결과를 현실로 이루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니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3절)는 말씀에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창 1:3)로 시작되는 천지 창조는 곧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만들어졌음을 알려 줍니다. 그리고 ‘지어진 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물들의 질서를 세우고 보기 좋게 배치하며 완성하고 장식하신 모든 것을 알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는 말씀은 세상은 스스로 생겨나지 않았다.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는 천지창조의 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선재(先在)했다는 것에 대한 부정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흙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창 1:2)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와 우리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조차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며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믿기에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전 2:9)는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내어 주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시는 분인데, 아직 한 가지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약속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계 22:12-13)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내하다 보면 세상의 비난과 팍팍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내가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동정

국가인권위원장, 강제송환금지



우크라이나 전쟁 중 생포돼 한국행의사를 밟힌 북한군 2명의 처리 문제를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안이 단순한 외교적 판단을 넘어 개인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걸린 중대한 인권 문제라며 국제법과 헌법이 보장하는 원칙에 따라야 함을 강조했다.

한기총 실행위 사무총장 직제삭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이하 한기총) 지난 11월 21일(금)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36-1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운영세칙 개정을 통해 ‘사무총장’ 직제를 삭제했다. 운영세칙은 실행위 의결만으로 개정이 가능하다. 또 대표회장의 ‘연임 가능 횟수’를 조정한 정관 개정안을 가결했다.

중독 없는 건강한 사회 세미나



기독교국제중독전문연구원(대표 김도형 목사)이 내년 열리는 제8차 국제중독컨퍼런스를 앞두고 전국을 돌며 중독사역 전문 세미나를 연다. 연구원은 이미 경기·강릉·충전 등지에서 1~3차 세미나를 마무리했으며, 24일 대구 반월당역에서 ‘중독 없는 건강한 사회’를 주제로 네 번째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동대, ‘세계인의 날’ 축제 열어



한동대학교(총장 최도성)는 지난 15일 효암채플과 효암별관에서 열린 ‘세계인의 날(Festival of Nations)’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1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축제는 세계 각국의 문화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글로벌 문화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행사는 ‘더 그레이티스트 쇼(The Greatest Show)’를 주제로 열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정치인 신격화·우상화는 독재로 가는 지름길

전제주의(專制主義) 국가 시대 왕이나 황제는 신(神)과 같은 존재였다. 그래서 왕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누구도 제대로 된 비판을 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에게 아부하고, 아첨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결국 국가는 파탄이 나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전제주의, 왕정 국가 시대가 아니다. 그야말로 자유 민주주의가 국가의 통치이며, 근간(根幹)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를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독립 국가가 된 이후에, 정치와 경제가 동시에 민주화를 이룬 나라로,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나라에서는 자유 민주

주의와 삼권분립이 흔들리는 상황을 우려하는 양식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치 지도자를 신격화, 우상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이 현 대통령을 ‘재림 예수’로 빛내어 말한다.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며, 어떤 의도인지, 혹은 무엇을 말하려는지는 모두 알 수 없으나, 일단 ‘재림 예수’로 빛내어 말한다는 그 자체가 심각한 침침(僭稱)과 오류(譏謬)와 혼란을 만들고 있다.

이 세상의 누구나 할지라도, 인류의 구원과 심판을 위하여 오실 ‘재림 예수’와 빛내거나 견주어서는 안 된다. 이는

어떤 변명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신격화와 우상화를 표방하는 것이다. 정치인을 이렇게 만들려고 할 때, ‘신성 모독’과 기독교에 대한 펜웨이는 차치(且置)하고 서둘러 수많은 문제점이 나타난다.

첫째는 자유 민주주의가 훼손된다. 자유 민주주의에서 정치 지도자는 국민들의 선택에 의하여 잠시 동안 권력을 맡는 위치이다. 그런데 마치 사람을 신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면, 법과 제도가 무시되며 쉽고, 국가가 곧 지도자라는 인식으로 돌변하여 국가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지게 만든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는 장기 집권에 대한 유혹이 생기게 된다.

둘째는 사회분열 현상이 극대화된다. 정치인을 우상화했을 때,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뜨렷하게 양분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진영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이 발생하고, 지지하는 쪽은 ‘절대선’으로, 반대하는 쪽은 ‘절대악’으로 구조화되기 쉽다.

셋째는 국가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 국가 운영은 정치 지도자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정책과 논리와 통계와 전문성과 국민통합으로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한 정치인의 개인적 성향에 의지하게 된다면 국가 시스템은 무너지고, 국제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게 된다. 그렇

게 되면 국가경쟁력은 곤두박질치는 것이다.

넷째는 독재와 부정부패를 부추긴다. 한 정치인을 마치 신처럼 떠받든다면, 그가 어떤 실수를 한다 하여도, 이를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세력들의 임지를 약화시켜, 결국은 독재를 부추기는 것이 된다. 또 그를 절대적 존재로 믿는 주변인들의 부정과 부패가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는 독재 국가들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폐단(弊端)이다.

다섯째는 책임지지 않는 정권이 될 것이다. 만약 정치 지도자를 신격화한다면, 그가 실패한 정책도 성공한 것으로 몰아가고, 그 책임은 다른 사람들이나 심지어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에게 돌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책임지지 않는 권력은 국민들의 정서와 현실에서 멀어져, 결국 국가와 국제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성회

2026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http://gd.ucts.org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출석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성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서정양식)
-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증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영학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접수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 개최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수교 대한 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사이버목회대학원 임명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ASSFMRI IFS OF GOD

AG
ASSEMBLIES OF GOD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서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인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

재소자들과 함께한 ‘감사와 나눔’ 추수감사예배

제주교도소 재소자 위문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시간 가져

제주지방회

제주지방회(회장 안재홍 목사) 교정위원회(교정위원 김견수 목사)는 지난 11월 20일(목) 오후 3시, 제주교도소 내 참빛교회에서 재소자들과 함께하는 추수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수형자들로 구성된 참빛교회 성도들과 함께 감사의 의미를 나누며 따뜻한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다.

설교는 장지원 목사(제주중앙감리교회)가 100: 4~5 말씀을 본문으로 ‘감사함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장 목사는 “입술에서 감사와 친송이 끊이지 않을 때 삶은 더욱 풍성해진다”고 전하며, 재소자들이 감사의 신앙으로 새로운 삶을 준비하도록 권면했다.

예배 후에는 제주지방회 기독교분과의 주관으로 재소자 1,000여 명 전원에게 특별 간식을 제공하며 따뜻한 사랑을 나



누었다. 이번 지원은 한 성도님의 후원으로 이루어져 더 큰 의미를 더했다. 이와 함께 신앙 성숙을 돋기 위한 ‘성경 필사자원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다. 성경 필사 노트 한 권을 완성할 때마다 2만 원의 영치금을 지급하여 재소자들의 지속적인 신앙유산을 격려하고 있다.

교정위원회 기독교분과에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교도소 예배를 인도하고 있으며, 교정위원 김견수 목사는 모범 수행

자 5명을 선정하여 격주로 기초 성경공부반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소자들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헌신적으로 돋고 있다.

제주지방회는 “지속적인 교정사역을 통해 재소자들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11월 월례회, 새김천교회에서 은혜롭게 열려

대구경북지방회

대구경북지방회(회장 정인철 목사)는 지난 11월 17일(월) 새김천교회(전임총회장 신재영 목사 사무)에서 월례회를 갖고 예배와 회무, 친교의 시간을 나누며 은혜로운 교제를 이어갔다.

이날 예배는 총무 이항구 목사(주천양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었고, 김재우 목사(성산은혜교회)가 대표 기도를 드렸다. 이어 김중면 목사(순복음평화교회)가 마 6:33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에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역사 속에서 지켜온 국가관과 오늘의 시대적 책임을 되새기는 메시지를 전했다.

아울러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 먼저 알고 계시기에 우선적으로 위에 것을 구하여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여야 한다. 하나님 기뻐하



시는 것을 구하여 필요한 모든 것도 받아 누리기를 축복했다.

이어 성여호수아 목사(시온순복음교회)의 현금기도, 도사현 목사(동해안순복음교회)의 현금축복과 축도 순으로 예배를 마무리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교단과 산하 교회, 그리고 지방회 소속 목회자들을 위해 함께 부르짖으며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배 후 진행된 회무처리에서는 지방회 사역 전반에 걸친 보고와 협의가 이어졌으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다음 사역을 준비하는 협력의 장이 마련되었다.

이어 새김천교회에서 준비한 일정에 따라 김천 인근 산재한정식집에서 점심을 함께하며 풍성한 교제를 나눴다. 식사 후에는 인근의 유명 전통찻집으로 자리를 옮겨 따뜻한 차를 나누며 담소를 이어갔다.

지방회 목회자들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서로를 격려한 뒤 각자의 사역으로 향했다. 이번 월례회는 예배와 우정, 협력의 의미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따뜻한 자리로 채워졌다.

“말씀 앞에 바로 서는 목회자 되자”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김남수 목사)는 지난 1월 11일(화) 열린순복음교회(담임 김미연 목사)에서 11월 월례회를 개최했다.

예배는 고성록 목사의 찬송인도로 시작해 총무 김진태 목사의 사회, 강신흥 목사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사모 중창단의 은혜로운 특송 후 이어 오승희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오 목사는 마 2:1-12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참 제자란?’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하며, 중풍병자를 위해 지붕을 뜯어 예수 앞에 내려놓았던 네 친구의 믿음과 그 과정에서 어떤 불편도 감수



하며 예수의 말씀에 귀 기울였던 집 주인의 믿음을 강조했다. 이어 “오늘을 사는 목회자들도 말씀 앞에 확신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고 권면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나라와 교단, 지방회, 그리고 병종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한 합심기도회를 가졌으며, 우행지 전도사의

현금기도와 전임지방회장 김효신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에는 김남수 회장의 인도로 월례회가 진행되어 주요 안건을 처리하였다. 이어 열린순복음교회가 정성껏 준비한 식사와 떡, 과일 등의 선물을 나누며 따뜻한 교제의 시간을 가진 후, 회원들은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교단 부흥사회, 믿음의 열정으로 부산 황령산에 오르다

은혜로운 가을산행기도회 통해 시대적 사명 재확인



김견수 목사
부흥사회장

이번 기도회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 받은 부흥사들이 한국교회와 교단의 회복을 위해 다시 한 번 사명을 굳게 붙드는

예수교대한하나님

의성회 교단 부흥사회(회장 김견수 목사)는 지난 11월 17일(월)부터 18일(화)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 일대에서 가을산행기도회를 진행했다.

이번 기도회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

은혜로운 자리였다.

개회예배—“제자로서의 조건”을 통한 사명 재확인 새 시대 맞디아 첫날 글로벌미션교회(담임 정환무 목사)에서 드린 개회예배에서 회장 김견수 목사는 행 1:21-26 말씀을 본문으로 ‘제자로서의 조건’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기릇유다를 대신해 제비 뽑혀 사도로 세워진 맞디아의 충성을 강조하며, “오늘의 부흥사들이야말로 이 시대에 부르신 주님의 13번째 제자가 되어

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서 열심을 내는 부흥사들이 되자”고 당부하며, 부흥 사회가 교단과 한국교회를 세우는 영적 중주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을 요청했다. 황령산 산행기도 나라와 교단을 위한 절절한 간구

둘째 날 부흥사들은 부산의 명소 황령산에 올라 나라와 민족, 교단을 위한 합심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차기운 바람 속에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정기영 목사)는 지난 11월 17일(월) 오전 11시,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에 위치한 순복음세운교회(담임 정기영 목사)에서 11월 월례회를 열고 한 해의 사역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로운 교제를 나누었다.

이날 월례회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태주 목사(순복음살롬교회)의 인도로 시작되어 강광수 목사(순복음아바교회)의 대표기도, 천준영 목사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정기영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히 5:7-9 말씀을 본문으로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을 전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가져오는 영적 유익과 성숙”을 강조하고 “모든 고난을 이기고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역시 예수



님처럼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했다.

합심기도 시간에는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기도했고,는 최계 순 목사(은혜순복음교회)의 현금기도, 조병희 목사(기장순복음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에서는 지방회 현안과 다양한 사역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회원들은 교단과 지방회, 그리고 지역 교회의 부

흥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았다. 이번 월례회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친교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은혜로운 모임으로, 부산지방회가 앞으로도 지역 복음화와 교단 발전을 위해 굳건히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었다. 회원들은 세운교회에서 준비한 인근 횟집으로 옮겨 식사를 한 후 커피숍으로 옮겨 차와 다과와 함께 담소를 나눈 후 12월 송년회 때 만나기로 하고 각자 목양지로 돌아갔다.

사랑과 열정으로 사명을 회복하자

환희순복음교회에서 11월 월례회 개최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김윤배 목사)는 지난 11월 17일(월) 환희순복음교회(이동수 목사)에서 11월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정재광 목사(생명샘 교회)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신명희 목사(부강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 이동수 목사(한희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 목사는 계 2:1-7 말씀을 본문으로 ‘첫 사랑과 첫 열정을 찾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이 목사는 “에베소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많은 사역에도 불구하고 첫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책망을 들었다”며 “목회를 처음 시작하던 때의 뜨거운 마음을 다시 불잡고, 동역자들도 동일한 열정으로 사



명을 회복하자”고 권면했다. 설교 후 최동순 목사(삼산순복음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진 2부 월례회에서는 지방회장 김윤배 목사의 인도로 각종 보고 사항을 서면대로 받았다. 기타 안건으로 상정된 ‘청주지방신학교 후원금 증액(연 200만 원)’ 요청은 정기지방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지방회 송년회를 오는 12월 2일 선유도로 떠나는 송년여행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회무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교단과 지방회, 지역 교회들의 부흥, 그리고 각자의 사명 감당을 위해 합심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전임회장 김용 목사(새희망교회)의 마침 기도 후 오찬을 나누고 각자의 사역으로 돌아갔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맡길 때 주어지는 은혜

경기북지방회

경기북지방회(회장 오세준 목사)는 지난 11월 11일(화) 오전 10시 30분, 다사랑교회(담임 이경진 목사)에서 11월 월례회를 개최했다. 지방회는 예배와 회무처리, 교제의 시간을 갖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연합과 섭김의 정신을 재확인했다.

1부 예배는 오세준 목사의 사회로 드려졌다. 박용진·이상숙 전도사의 인도로 찬양이 울려 퍼졌으며, 신앙고백(사도신경)과 찬송 후 강인덕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전임회장 박승호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박 목사는 뉴 18:1-27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는 예수님이 선언처럼, 영생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맡길 때



주어지는 은혜임을 전했다. 또한 오늘의 목회자들도 자신의 사역과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앞세워 놓은 것이 없는지 점검하며, 주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제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권면했다. 2부 회무는 지방회장 오세준 목사의 진행으로 이어졌다. 총무 박태근 목사가 회원점명과 총무·서기 보고를 했으며, 재정 박태근 목사가 재정보고를 전했다. 이어 기타 안건을 함께 논의한 뒤, 전임회장 문찬우 목

사의 폐회기도로 회무가 마무리되었다. 광고 시간에는 2025년 지방회 송년회가 오는 12월 13일(토)에 열릴 예정임이 공지되었다. 또한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총무에게 알려 줄 것을 당부했으며, 지방회 계좌 안내와 기타 문의는 총무에게 연락하도록 안내했다. 예배와 회무를 마친 후, 참석한 목회자들은 교회가 준비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안 전수 6. 부흥사들의 시대적 사명 감당—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역동적 사역 감당
마무리 기도—“흔한 시대에 이정표가 되게 하소서”
모든 순서를 마친 후, 지도고문 신재영 목사는 마무리 기도를 통해 “부흥사들이 먼저 깨어 시대의 영적 나침반이 되게 하소서”라고 간구했다.
또한 이번 기도회가 일회성 행사가 아

은혜로운 가을산행기도회 통해 시대적 사명 재확인

예수교대한하나님

의성회 교단 부흥사회(회장 김견수 목사)는 지난 11월 17일(월)부터 18일(화)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 일대에서 가을산행기도회를 진행했다.

이번 기도회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

자리였다.

개회예배—“제자로서의 조건”을 통한 사명 재확인 새 시대 맞디아 첫날 글로벌미션교회(담임 정환무 목사)에서 드린 개회예배에서 회장 김견수 목사는 행 1:21-26 말씀을 본문으로 ‘제자로서의 조건’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기릇유다를 대신해 제비 뽑혀 사도로 세워진 맞디아의 충성을 강조하며, “오늘의 부흥사들이야말로 이 시대에 부르신 주님의 13번째 제자가 되어

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서 열심을 내는 부흥사들이 되자”고 당부하며, 부흥 사회가 교단과 한국교회를 세우는 영적 중주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을 요청했다. 황령산 산행기도 나라와 교단을 위한 절절한 간구

둘째 날 부흥사들은 부산의 명소 황령산에 올라 나라와 민족, 교단을 위한 합심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차기운 바람 속에

사단 범인 만사소년 충남·대전지부, 11월 15일 창립식 가져

천종호 판사의 회복철학 계승…지역 위기 청소년 돌봄 사역 본격화

충남지방회



사단법인 만사소년 충남·대전지부(지부장 안병찬 목사, 사무총장 김순구 목사)는 11월 15일(토) 오전 11시, 순복음참아름다운교회(담임 안병찬 목사)에서 창단식을 갖고 지역 내 위기 청소년을 위한 돌봄 사역을 공식 출범했다.

만사소년은 '호통 판사'로 널리 알려진 천종호 부장판사(부산지방법원)의 회복적 사법 철학을 기반으로 세워진 단체로, 보호처분 1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의 사법형 그룹 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들의 회복과 자립을 돋는 사역을 이어왔다.

그러나 청소년 범죄에서 성인 범죄로 넘어가는



경계선에 놓인 청소년들은 대부분 학교 밖·가정 밖·교회 밖이라는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충분한 관심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만사소년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이가 필요하다"는 공동체 정신을 기초로, 아버지 같은 든든함, 어머니 같은 따뜻함, 이웃의 친근한 지지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돋울 목표를 두고 있다.

이번에 창단된 충남·대전지부는 천종호 판사의 회복철학을 이어 받아 지역사회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복음적 가치와 회복적 돌봄을 제공하고, 심리·정서·생활 등 실제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지부장 안병찬 목사는 "청소년 한 명을 살리는 일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세우는 일"이라며 지역 교회와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김순구 사무총장은 "청소년 사역은 몇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명"이라며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사랑, 그리고 후원이 절실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충남·대전지부는 위기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상담·생활지원·회복 프로그램 등 다양한 돌봄 사역을 펼치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후원 계좌: KB국민은행 122101-04-303385
예금주: 사단법인 만사소년(만사소년지부)



한기총, 제36-9차 임원회(긴급) 개최

신규회원 가입 및 사무총장 제명 결의

권한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사무총장은 본래 한기총의 재정과 행정 전반을 관리·집행하는 책임 있는 직분으로, 김정환 목사는 재정 집행에 있어 투명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해손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사무총장직을 상실했고, 한기총의 공적 신뢰와 도덕성을 해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② 모 교회에서 유포 중인 문서와 영상에 대해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제경매'에 대한 건을 자료로 제출했으나, 강제경매의 시기와 문제의 문서와 영상의 시기가 다르고, 실제 금품을 요청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했다.

③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내부절차를 통한 이의제기 없이 사회 법정 혹은 경찰, 검찰에 고소, 고발을 날발하는 행위에 대하여 기존 징계에 3배의 징계를 추가하는 것(현재 진행되는 소송 및 고발 건을 포함하여 소급해서 적용)을 임원회 결의(5월 2일 제35-2차 임원회, 6월 18일 제35-3차 임원회), 실행위원회 보고(6월 18일 제35-1차 실행위원회), 임시총회 보고(6월 27일 제35-1차 임시총회)로 통과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내부절차를 통한 이의제기도 없이 민사소송을 날발하여 한기총의 질서를 해손시킨 점이 확인됐다.

④ 김정환 목사가 종회장 및 단체장으로 있는 종회, 단체의 사무실(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71길 28-22)을 실제 운영하는 당사자는 '사실확인서'를 통해 해당 종회나 단체가 사용하도록 승인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인한바, 김정환 목사의 종회나 단체가 실제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는 근거로 결론을 내렸음을 밝혔다.



충북지방회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전하는 사명 감당 다짐

부강순복음교회 18년 만에 현당예배 드려

충북지방회(회장 김윤배 목사) 부강순복음교회(담임 신명희 목사)는 지난 11월 8일(토) 오전 11시, 새로운 성전 봉헌을 기념하는 현당예배를 드렸다. 새 성전을 건축해 입당한 지 18년 만에 드리는 현당예배라 그 감동이 더욱 깊었다.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오병용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회계 강원석 목사의 기도, 서기 정재광 목사의 성경봉독이 이어졌다. 설교는 전임회장 윤경현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윤 목사는 딥전 3:15 말씀을 본문으로 '현당

의 감격과 도전'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선언한다. 현당예배는 바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곳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자리다. 먼저,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며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적 이유, 곧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전하는 사명을 되새겨야 한다"고 사명감당을 위한 현신을 강조했다.

이어 신명희 담임목사의 성전건축 경과보고

를 전한 후 성전 현건사가 진행되었다.

부강순복음교회는 이날 현당예배와 함께 2부 순서로 3명의 권사 임직식을 함께 거행했다. 임직식은 신명희 목사의 인도로 진행되었으며, 임직자 서약 후 지방회 안수위원들의 안수례가 이어졌다.

이어 전임회장 김윤용 목사가 권면을, 지방회장 김윤배 목사가 축사를 전했으며, 부회장 김경준 목사의 축도로 모든 예식이 마무리되었다.

예배 후에는 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나누며 감사의 기쁨을 함께 하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5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사이버목회대학원 졸업예배



2024년 졸업식 광경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본 사이버신학연구원·사이버목회대학원 학사일정에 따라 2025학년도 졸업식을
시행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앞날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25년 12월 18일(목) 오전 11시
-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
- 참석대상 : 사이버신학연구원·사이버목회대학원 졸업 대상자
- 참 고 :
 - 1) 졸업 대상자는 졸업식 당일 오전 9시 30분까지
안양성전 1층으로 도착(예행 연습)
 - 2) 졸업가운 수령은 졸업식 당일 안내를 드릴
예정이오니 시간 엄수하시어 도착바랍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사이버신학연구원·사이버총회목회대학원

제8회 예장총연(제27회 예장연) 정기총회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출발하자’ 주제로 열려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대표회장 이광용 목사)는 지난 11월 14일(금)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제8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한국교회의 본질 회복과 영적 간신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이번 총회는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출발하자’는 주제 아래 열렸으며, 예장총연 산하 회원 교단들이 한자리에 모여 말씀 중심의 신앙운동과 성령 충만한 사역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결의를 다졌다. 대표회장에는 이광용 목사가 재선임됐다.

예배로 시작된 영적 결단의 시간

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상임회장 안병삼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상임회장 원동인 목사의 대표기도, 총무 김종대 목사의 성경봉독, 예장 합동전국연합총회 임원일동의 찬양, 창4동어린이집 교사들의 찬양, 예장보수합동총회 강은혜 목사의 축시 낭송이 은혜롭게 이어졌다.

이어 본회 고문 예영수 목사는 시 23:1-6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오늘의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메밀리가는 이유는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질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때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셔서 두려움 속에 움츠러든 이 백성이 회복되기를 기도한다”고 덧붙이며 회원들에게 말씀회복의 사명을 일깨웠다.

곧바로 본회 고문 김원식 목사의 축사에 이어 특별기도로 ‘국가와 통일’, ‘정계 지도자들’, ‘국가 안보와 사회 경제 발전’, ‘한국교회 말씀개혁과 성령총만’, 저출산해결 및 사회, 도덕, 윤리회복’



‘WCC와 WEA 및 이단 패망’, ‘(사)예장총연의 부흥과 발전’ 등을 주제로 한 특별기도가 이어졌다.

기도에는 이종태·지광식·이후현·오선미·조규연·김태지·하석수 목사 등이 참여해 나라와 교회를 위한 간절한 중보의 시간을 가졌다.

예배는 예장보수합동총회 임원들의 현금찬양, 이광용 목사의 인사말, 범인이사 김순종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갱신의 길’

예배 후 진행된 총회에서는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정관에 따라 인선위원회를 구성, 임원진 일부를 선출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새로운 회기에 도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신학 세미나와 지도자 포럼을 계속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총회의 주제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출발하자’는 단순한 구호를 넘어, 오늘의 한국교회가 직면한 현실에 대한 깊은 반성과 방향 제시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광용 대표회장은 “세속주의와 이념 대립 속에서 교회가 말씀을 잊고 성령의 능력을 잊으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며 “이제는 교파나 조직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회는 오랜 팬데믹의 그늘을 지나오며 예배의 본질과 신앙의 정체성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교단은 성장의 둔화, 세대 간 단절, 이단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장총연이 강조하는 ‘말씀 회복과 성령 간신’의 의침은 단지 한 단체의 결의가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 전체가 귀 기울여야 할 시대적 요청이라 할 수 있다.

말씀과 성령, 교회

총회 관계자는 “말씀과 성령은 교회를 세우는 두 기둥이며,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만 참된 부흥이 가능하다”며 “이번 총회를 계기로 각 교단과 목회자들이 다시 말씀 앞에 서고,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예장총연은 향후에도 각 지역 교단과 협력하여 말씀 세미나, 목회자 양성훈련, 청년 신앙회복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제8회기 신임 임원진 명단

*대표회장: 이광용 목사
*고문: 김원식 목사, 육육수 목사, 김기형 목사, 예영수 목사, 정태래 목사, 김수영 목사, 염장호 목사, 송현 목사, 이태주 목사

*상임회장: 안병삼 목사, 오선미 목사, 이후현 목사, 지광식 목사, 김병선 목사, 원동인 목사

*서기: 김영복 목사

이번 예장총연 정기총회는 단순한 회무처리를 넘어,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근본 질문을 던진 자리였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며, 그 말씀을 현실 속에서 실천하게 하는 힘은 오직 성령으로부터 온다.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출발하자’는 주제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오늘의 교회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영적 방향표이다.



손현보 목사 구속에 ‘종교 자유 역행’ 강력 비판

교회사유시민연대, “인권 침해 소지 다분”

교회사유시민연대(대표 남궁현우 목사, 이하 교자연)가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의 장기 구속에 대해 “종교적 발언을 정치행위로 몰아세워 입마음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국제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맹렬히 비판하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의 엄격한 해석이 과도한 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 3개월 넘는 이례적 구속, 무죄 추정 원칙 훼손 자적

손 목사는 지난 9월 9일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상태다. 이에 대해 교자연은 1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손 목사는 법정에서 ‘정책 질의였을 뿐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형교회 담임목사라는 신분상 도주 우려가 극히 낮음에도 검찰이 ‘도주 우려’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한 점은 상식 밖의 결정이라는 비판이다.

또한, 1심 공판이 석연치 않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교자연은 “당초 공판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었음에도 검찰 측의 자료 제출 지연으로 손 목사의 수감 기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졌다”고 지적했다. 통상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일반적인데, 3개월 이상 구치소에 수감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이는 명백히 무죄추정 원칙을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라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 종교적 신념 표현인가, 선거 개입인가… 갈림길에 선 ‘종교의 자유’

교자연은 손현보 목사가 교회 내 설교와 행사에서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등 ‘성경적 신앙고백’에 근거한 발언을 해왔으며, 이는 종교적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이 특정 후보 비판이나 선거 개입으로 확대 해석되어 형사사건화된 것에 대해 종교계는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입장문은 “한국교회의 상당수는 비영리법인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적 의견 표명은 자유

로운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규제되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한국교회의 입을 막으려는 법적·행정적 압박이자 사회주의적 통제에 가깝다”는 격한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 “미국은 허용하는데 한국은?” … 국제적 흐름과 괴리된 국내 현실

이들은 특히 국제적 상황과의 비교를 통해 국내 법 집행의 경직성을 지적했다. 미국 국세청(IRS)이 최근 교회의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비영리 면세 자격을 박탈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천명했으며, 미국 교회들은 세금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설교 중 특정 후보 지지 또는 반대 발언을 할 자유를 꾹꾹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교자연은 “국제사회의 흐름은 종교 자유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의 엄격한 선거법 해석은 시대 변화에 전혀 맞지 않는다”며 국내 법 집행 기관의 시대착오적 인식을 꼬집었다.

끝으로 교자연은 손 목사에 대한 즉각적인 보석 재판 또는 석방 절차 전환을 요구하며 “검찰과 사법기관은 인권 침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투명한 절차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사회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선거법과 정치관계법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연 이번 사건이 한국 사회의 종교 자유와 선거법 해석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관심이 집중된다.

“인구주택총조사 ‘동성 배우자’ 표기 삭제해야”

퍼시연 등 54개 시민단체, 대전서 기자회견 열어 강력 규탄

퍼스트코리아(FIRSTKorea) 시민연대(퍼시연)를 비롯한 54개 시민단체들이 지난 11월 21일(금) 대전 정부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동거인에게 배우자 표기’를 허용한 정부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사실상 동성혼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며 “해당 통계를 즉각 삭제하고 책임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이 ‘양성의 결합’을 기초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역시 혼인의 주체를 남성과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여러 판례를 통해 현행 법질서가 이성 간 혼인만을 인정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확인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행정 절차인 통계조사를 통해 동성 동거인을 ‘배우자’로 분류한 것은 명백한 할증이다”며 “법률이 규정한 ‘배우자’ 개념을 행정지침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규탄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025 조사는 기술적 조정이며 동성 부부 통계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단체들은 강하게 반박했다. 이들은 “가구 구성이나 동거 유형 파악이 목적이라면 이미 ‘동거 여부’, ‘가족 유형’, ‘비혼 동거’ 등 중립적 항목이 존재한다”며 “동성 동거인을 굳이 ‘배우자’ 법

주에 포함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체들은 “법률상 존재할 수 없는 관계를 설문에서 ‘배우자’로 응답하게 한 설계 자체가 법률이 정한 배우자 개념을 행정이 자의적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조사 누락 방지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며 “해당 항목은 기술적 조정으로 축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 법 개념의 변경”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러한 통계가 실제 행정·교육·복지 정책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조례 수립의 근거로 사용될 경우, “결국 국가 통계에서 이미 배우자로 인정한 관계”라는 논리를 만들어 동성혼을 정치·사법·행정 전 영역에서 기정사실화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법률이 규정한 혼인제도를 우회해 통계라는 도구로 사회 인식을 선도적으로 바꾸려는 이념적 시도”라며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논의 없이 행정이 혼인 개념을 독단적으로 재정의한 것과 다름없다”고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단체들은 “국가데이터처가 ‘동성 동거인’을 동성 부부 통계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며 “국민의 동의도, 국회의 논의도, 법적 근거도 없는 이번 조사는 사실상 위장된 혼인제도 개편 시도이므로 관련 통계를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의 가족 질서와 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왜곡하려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대응을 예고했다.



광주 기독교 선교 역사 간직한 유산, 세계에 알린다

‘세계유산 등재 추진 학술회의’ 및 현장 워크숍 열려



광주의 기독교 선교역사와 그 유산을 학술적으로 돌아보고 이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광주관광공사, 광주기독교단협의회, 한국선교유적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한국 기독교 선교유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학술회’와 현장 워크숍이 11월 20일(목) 오후부터 21일(금)까지 호남신학대학교 명성홀 등에서 목회자와 성도 및 시민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행사는 ‘선교기지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 8개 지방부 협의회’가 후원원회다.

광주를 비롯해 전주, 순천, 목포, 지리산 일대 등 호남지역에는 한국 근대 기독교의 역사와 선교사들의 헌신을 염두에 두고 있는 선교유적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런 곳들 중 일부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첫날 ‘광주의 기독교 선교역사와 유산’이라는 주제로 송오식 교수(전남대학교 명예)가 사회를 본 학술회의에선 △서만철 한국선교유적연구원

장이 ‘근대 기독교 선교기지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송현강 교수(한남대학교)가 광주 선교기지의 내력과 그 보편적 가치 △천득연 교수(전남대학교 명예)가 ‘광주 기독교 선교기지 유적의 세계유산적 가치’ △한민수 교수(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광주 선교기지의 보존현황과 유산활용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이튿날은 양림 기독교 선교유산 현장에서 워크숍을 가졌다. 호남신학대학교에서 출발해 선교사 묘역, 호랑가시나무, 우일선교사사택, 유진벨 선교기념관, 최종종기념관, 선교기념비, 오웬기념각, 양림교회를 거쳐 다시 호남신학대학교를 돌아오는 일정이었다.

광주기독교단협의회(광교협) 대표회장 정석윤 목사는 “광주에 있는 기독교 선교유산들의 현황과 그 역사적 가치,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깊은 의미를 돌아볼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이것이 한국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유산이 될 수 있도록, 그 가치와 의미를 전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계, 차별금지법 발의 추진 규탄

“종교·표현의 자유 침해… 사회 갈등만 증폭될 것”

-거룩한방파제·진평연,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와 진정한평등을 바라는나쁜차별금지법 반대전국연합(진평연)이 지난 11월 22일(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솔 진보당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첫 차별금지법 발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단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가져 올 법적 모호성, 기본권 충돌, 과도한 행정 규제 등을 지적하며 “이미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반복해 추진하는 것은 위험한 시도”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차별금지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종교·양심·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의의 비판이나 신념의 표현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소송대리관 강화, 집단소송제 도입, 차별시정정책위원회 신설, 지방정부의 5년 단위 차별시정계획 의무화 등은 “행정기관 권한을 과도하게 확장시키고 교육·공공·기업현장에 새로운 규제 부담을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다양한 개별 법령과 제도를 통해 차별 행위가 규율되고 있음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도입될 경우 기존 제도와 충돌하며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조배숙 의원(국민의힘)은 인사말에서 “차별금지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표현·신앙·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과거 범안들이 기본권 충돌 문제로 폐기된 이유에 대한 성찰 없이 재 추진하는 것은 큰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박한수 목사(홀리브릿지네트워크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을 알고도 발의한다면 국민의 미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비양심적 행위이며, 모르고 발의한다면 무지의 결과이기에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진평연,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성평등가족부 반대 대책위원회 등 84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아카데미 원장

마지막 가을을 보내며… 한 영혼을 주께로

구름에 해 지듯 나무에 지는 노을 눈부신 산새의 비경인가, 흐르는 오색찬란함이여. 천상의 신비 심연의 거울이라. 보라, 가을의 시선이여 그대 면발치에 선 기러기의 설움 들어보라. 이제 어느덧 세월의 탄식은 잣아들고 석양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되어 그대는 황혼의 끝자락에 서서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아 가을의 향연이여, 그대 낙엽의 향취여. 먼 하늘 넘어 천상의 시간 그리운 영혼의 고향 영원한 어머니의 품이여라. 그대여 영원한 기쁨이여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광의 빛이시여, 사계절 돌아서니 은은한 사랑 익는 한내에 흠뻑 젖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오늘 나는 떠나는 가을을 위해 사랑의 향기로 한 송이 꽃을 전하리라. 그리고 사랑의 향기로 한 송이 복음의 꽃을 피우리라. 이후고 영원한 생명, 예수의 향기로 피어난 한 송이 꽂이 되리라.

오늘도 복음을 들고 나아가리라. 세종시 전도집



도너페밀리 위한 ‘심리지원 프로그램’ 마쳐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도너페밀리 7명의 정서적 치유지원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유재수)가 마련한 도너페밀리를 위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지난 11월 14일(금) 총 8회기의 여성으로 마무리됐다. 프로그램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네이버 해피빈 모금을 통해 마련된 기부금으로 운영됐다. 그밖에도 도너페밀리의 심리지원을 맡아온 CCC순상담센터가 올해도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녀·배우자·부모를 잃은 도너페밀리 7명의 정서적 치유를 지원했다.

프로그램은 기증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나누고, 자신이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자기 회복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유가족들의 건강한 애도과정을 동행했다. 특히 6회기에는 서울 보라매공원에 조성된 뇌사 장기기증인 기념공간을 방문해 기증인에게 편지를 쓰고, 기증인의 이름이 새겨진 명찰을 부착하며 가슴 속에 묻어둔 슬픔을 내려놓고 삶의 희망을 재발견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서울 충정로역사 내에 위치한 도너페밀리 사랑방에서 열린 ‘제5회 심리지원 프로그램’ 수료식에서 선배 도너페밀리에게 꽃다발을 건네받은 노자안 씨(68세, 여)는 남편故 천기화 씨를 떠올리며 눈물을 훔쳤다. 고인은 2011년 세상을 떠나며 장기 7개와 인체조직 36개를 기증했다. 노 씨는 “울티리 같은 남편을 잃은 뒤 감정이 무너질까 두려웠지만, 고인의 사랑을 기억하는 일이 곧 나를 회복시키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했다.



신경숙 씨의 어머니 하만임 씨(68세)는 “자녀를 먼저 보낸 일은 여전히 가슴이 아프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위로받고 슬픔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며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딸을 위해 건강히 살아가는 행복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전했다. 김옥진 씨 역시 “함께해준 도너페밀리 덕분에 혼자인 것 같은 슬픔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2020년 4명에게 생명을 나누고 떠난故

아신대, ‘하이브리드 강의실’ 마련

온·오프라인 융합형 수업 가능, 실시간 상호소통

아신대학교(총장 정홍열)는 94학번 졸업동문의 후원으로 ‘하이브리드 강의실’을 마련하고 2학기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하이브리드 강의실은 해외 및 원거리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더라도 현장 수업과 동일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첨단 교육 공간이다. 고화질 카메라, 자동 음성 추적 마이크,

대학생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느낄 수 있어 몰입감이 높다”고 체험소감을 전했다.

아신대학교 관계자는 “이번 하이브리드 강의실 구축은 동물들의 뜻깊은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맞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학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해 쓰임새와 효능 무궁무진

최고의 ‘365일 신안비금천일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청정지역 신안에서 깨끗한 해수로 생산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청정지역인 전남 신안의 천혜의 자연 환경에서 깨끗한 해수와 적정 일조량으로 생산되는 신안천일염은 풍부한 미네랄로 인해 그 쓰임새와 효능이 무궁무진한 식품입니다. 한국 최고의 천일염은 바로 신안 천일염입니다.

천일염은 고혈압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분명한 것은 고혈압에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네랄이 풍부한 좋은 소금(천일염)을 잘 사용하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일반소금은 미네랄이 별로 없거나 극히 미량이라고 합니다. 틸수할 때 강제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미네랄도 함께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써본 결과 음식맛이 확 달랐습니다. 재료 고유의 깊은 맛을 잘 살려주더군요.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신안천일염도 청정지역 신안의 깨끗한 해수와 적정 일조량으로 생산하고 있어 미네랄이 풍부해 그 어떤 소금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일반염과 천일염의 차이는?

1. 천일염은 100%로 염화나트륨이다. 반면에 천일염은 85% 염화나트륨, 15%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다. 칼슘, 칼륨, 마그네슘은 나트륨을 제외로 배출시켜 혈압을 낮춘다.

2. 간장, 된장, 고추장, 짓갈, 김치를 만들 때 천일염을 써야 맛과 풍미가 좋아진다. 밸효균이 천일염보다 천일염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천일염은 어떻게 만드나요?

천일염은 태양열, 바람 등 자연을 이용하여 해수를 저류지로 유입해 바닷물을 농축시켜서 만든 소금이다. 천일염의 주요 산지는 지중해, 홍해 연안의 각국을 위시해 미국, 인도, 중국 등 각 해양연안에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와 남해에서 주로 생산된다. 천일염의 염도는 일반적으로 90% 내외이고 색상은 백색과 툈명색이 있으나 한국산은 가상조건으로 염도 80% 내외의 백색이다.

천일염 만드는 방법

해수에 용존되어 있는 염분을 태양열, 풍력, 자연력에 의해 포화 함수로 만들어 결정시킨 것으로 우리나라 서 남해에서 많이 생산되며 염도는 85~88%정도이다. 계절에 따라 맛의 차이가 나며 30도 정도의 물의 온도를 맞춰 생성된 소금이 가장 좋다.

■ 가격 20kg 1포 37,000원(택배비 포함)

■ 응행계좌 302-1777-9898-51 농협은행 김영국

할렐루야!

그동안 성원해 주신 많은 교회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 올립니다. 저희 신안(비금도) 천일염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간수가 잘 빠진 2022년도산의 품질 좋은 제품으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교회식당 또는 교회 성도님들이 단체로 구입할 경우 택배비없이 다양구매 특별할인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연중무휴 365일 주문접수)

믿음으로 생각 깊은 곳으로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언론회 명예대표·논설고문, 칼빈대 전 교수, 대석교회



마음의 고향, 가정

아기들이 걸음미를 배우고 익혀서 겨우 바깥나들이를 할 때 집에서 잠시 몇십 미터를 갔다가는 금세 다시 돌아와서 집안에 엄마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나가 놀고, 또 잠시 후 다시 돌아와서는 “엄마”를 부르며 확인한 후에 다시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엄마, 그리고 가정이 제일입니다.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이들이 나이 많아 늙어도 어릴 때의 가정이 그리고 엄마가 그리운 것입니다. 가정과 부모는 떠려야 떨 수 없는 관계입니다.

가정은 우리 모두 마음의 고향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람들이 건강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도 건강합니다. 가정이 병들면 사회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가정은 흄스위트 흄(home sweet home)이 되어야 합니다.

존 하워드 페인이 작사한 노래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니~꽃 피고 새 우는 내 집이니~란 곡절과 인종을 넘어서 세계인들이 애창하는 것은 그 노래에 담긴 내용을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한 고향인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의 샘터이기 때문입니다.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주의 은혜로...

예수님 믿기 전에는

고난의 이유를 타인에게서 찾았으나

예수님 믿은 후에는 고난의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게 됩니다.

예전엔

내면을 들여다보는 능력이 내게 없었는데

이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겉사람과 속사람을

구분하여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굴 원망 할 자격도...

누굴 비판 할 자격도...

내게 없다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으로 인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평안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황혼의 나이에 들어서면서

더 깊은 말씀의 생수를 마신다.

나이를 헛먹은 세월은 분명 아니다.

성령님과 함께한 세월에 감사 할 뿐이다.

셋째, 공정한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겸손과 실천이다. 미가 선지자가 말한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미 6:8)는 말씀은 권력 앞에 무력하다는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함께 기억하는 태도다. 겸손은 책임 회피가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위한 준비다.

실천은 단지 비판에 머무르지 않는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부터 공정·정직·책임성을 가르치고 실천하며, 건강한 시민을 길러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사회 변화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작은 공동체의 성숙으로부터 시작된다.

첫째, 사법정의의 위기 앞에서 교회는 침묵할 수 없다. 성경은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세우라”(사 1:17)고 가르친다. 이번 사안에서 제기된 ‘항소 포기’ 논란은 수천억 원대의 범죄수익 환수 기회를 봉쇄했다는 내부검찰의 문제 제기와 맞물려 사법 시스템이 권력과 결탁했거나 외압에 흔들린 것은 아닌지 국민적 의구심을 낳았다.

정의가 훼손될 때, 신앙인은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시니”(시 116:5)라는 고백에 머물지 않고 행동해야 한다. 영훈 구원뿐 아니라 이 땅의 불의 앞에서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는 말씀을 따라 진실을 밝히는데 동참해야 한다.

둘째, 경제 받지 않는 권리의 위험성을 우리는 분명하게 배워야 한다. 장 대표가 “히틀러의 망령”과 “동물농장”을 언급한 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권리운영의 방식 그 자체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정치권 역시 범치주의를 흔드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사법제도를 흔들거나, 검찰·법원을 향해 무책임한 압박과 펌리를 반복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법은 사람 위에 있으며, 어떤 정치세력도 법치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정치권은 ‘내 편이면 감싸고, 남의 편이면 공격하는’ 편 가르기를 멈추고 공정한 제도 운영에 나서야 한다.

셋째, 공정한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겸손과 실천이다. 미가 선지자가 말한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미 6:8)는 말씀은 권력 앞에 무력하다는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함께 기억하는 태도다. 겸손은 책임 회피가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위한 준비다.

실천은 단지 비판에 머무르지 않는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부터 공정·정직·책임성을 가르치고 실천하며, 건강한 시민을 길러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사회 변화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작은 공동체의 성숙으로부터 시작된다.

넷째, 이번 사태는 동시에 한국교회에도 자정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교회가 사회적 공의를 말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공정해야 한다. 교회 내 재정의 투명성, 지도자의 거룩성과 책임성, 공동체 내 분쟁 조정의 공정함은 신앙의 본질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세상이 교회에 실망하는 이유 중 상당수는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 교회 내부의 불투명한 운영과 부도덕한 사건들 때문이다.

교회가 공의를 외치려면 먼저 안에서 공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 빛은 숨겨진 곳도 드러내고 어두움을 물어낸다. 교회가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일은 단지 체면을 지키기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순종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창세기의 선언은 인간의 존엄이 권리와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절대적 가치임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교회가 지켜야 할 정의는 특정 세력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모든 이가 공정하게 대우받는 사회 질서이다.

이제 교회는 침묵이 아니라 행동을 요구받고 있다. 정의가 땅에 뿌리내리고, 악자가 보호받고, 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나라—그리스도의 사랑이 일상의 결로 스며드는 나라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목
양
신
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인쇄인 : 배성한

●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원로목사 추대 및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

<교회 목표>
여호와의 기(旗)를 세우라!!! (출애굽기 17장 15절)

오! 주여! 이 성전에 들어오는 자마다 구원하여 주시고 복 받게 하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이 우리 하나님과 주예수그리스도께 영원토록,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0평도 안되던 초막성전에서 1만평이 넘는 대성전으로, 7명밖에 안되던 성도를 3만여 성도로, 제가 드렸던 60평의 대지를 6천평이 넘는 부지로 발전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시 46:10)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저는 이 성전을 통하여 만민이 구원받고 우리 성도들이 대대로 복 받을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가득차서 십만성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을 바라보니 기쁨이 한량 없습니다.

원로목사님 추대 및 담임목사님 취임 예배에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제직회 및 성도 일동

일시 : 2025년 12월 7일 주일 오후 4시

장소 : 청주중앙순복음교회 대성전(3층)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내수동로 185 www.ccfgc.or.kr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청주중앙순복음교회

TEL : 043-279-9900
FAX : 043-279-9978